관계부처합동 **보도자료**

2026. 4. 6.(월) 즉시 (온라인 보도) 2026. 4. 6.(월) 16:00

“소방-국방 기술협력으로”…
소방청·방위사업청 국민 안전 함께 지킨다

- 4월 6일 과천청사에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 협력 방안 논의 및 협약 체결
- 군 정찰용 무인수상정을 소방 구조용으로 개발하는 등 첨단 국방기술 적극 연계
- 시험평가 시설 공유 및 획득 제도 교류로 K-소방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

□ 소방청(청장 김승룡)과 방위사업청(청장 이용철)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,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.

○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,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,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,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,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.

○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.

□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.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,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.

○ 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국방기술과 연계한 기술 이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김승룡 소방청장은 “이번 방위사업청과의 업무협약은 국방 핵심기술을 연계한 소방 적용기술 개발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”라며, “국방의 첨단기술이 소방장비 분야로 확장되어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강조했다.

○ 이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은 국방기술의 활용 범위를 국민 안전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국방기술 성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소방청 등 공공안전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소방청 첨단장비과	책임자	국 장 代 한 선 (044-205-7680)
		담당자	과(팀) 장 황창혁 (044-205-7681)
	방위사업청 기술혁신과	책임자	국(부) 장 윤창문 (02-2079-6800)
		담당자	과(팀) 장 송인출 (02-2079-664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